

월간 깐달

아피들이 깐달에 머무른 지 어느새 네 달째...

중간평가가 있었던 깐달 아피들의 6월 이야기

issue No.

04

June 2014

Contents

01. JUNE

02. YDP

03. 350PPM

04. CDP

05. 중간평가

06. 일상

07. ESSAY

08. PHOTO

간달 아띠들의 6월 스케줄

SUN	MON	TUE	WEN	THU	FRI	SAT
1	2 350PPM meeting	3 Sports activity	4 환경 포럼	5 350PPM campaign	6 Cooking class	7
8	9 CD Svay prey	10 닭장 만들기	11 닭장 만들기	12 닭장 만들기	13	14 *은솔 간사님 도착
15 프놈펜 with 은솔 간사님	16 버섯농가 흙 담기 *라간사님 도착	17 중간 평가 *은솔 간사님 귀국	18 프놈펜 with 라간사님, 효림 병원	19 버섯농가 흙 묶기	20 버섯농가 비료만들기	21
22 라간사님 귀국	23 CD Taut Ma	24 CD Taut Ma	25 Taut Ma 밭 갈기	26 CD Taut Ma	27	28
29	30 CD학생들 바탐방으로... π, π	월,수,금 ▶ 한국어 Children / Youth 수업 화,목 ▶ 영어 Youth intermediate / basic수업				

1. Korean / English class 학생 수 감소로 일시 정지!!

1. Youth들의 캄보디아-태국 국경지역 파견

태국, 캄보디아 근로자 10만명 이상 추방

태국 군부, 불법체류 단속 강화...산업 붕괴 · 외교 갈등 우려

글로벌 > 경제 | 최종 2014-06-16 06:13 | [배준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승인쇄 + 크게 - 작게

태국 <

군부 <

인력 <

캄보디아 <

태국 <

군부 <

인력 <

캄보디아 <

태국 <

군부 <

인력 <

캄보디아 <

쿠데타

계엄령

근로자의 날

인력추진나

태국 군부가 불법체류 단속 강화를 명분으로 최근 10만명이 넘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을 추방했다고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태국 제조업의 바탕을 이루는 캄보디아 근로자들이 대거 축출되면서 현지 산업이 붕괴하는 것은 물론 태국과 캄보디아의 외교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최근에 태국 당국이 캄보디아 근로자들을 사살하거나 폭행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고국 귀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태국 정부에서 일어난 쿠데타의 영향으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들이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태국에서 추방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Caritas의 학생들은 캄보디아와 태국의 국경지대로 약 열흘 간 파견을 다녀왔습니다. 반이 넘는 학생들이 국경지대로 갔고 이에 따라 영어/한국어 수업의 학생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갑작스레 학생들이 국경지대로 떠나게 되어 아띠들은 무척 당황 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7월 1일에 떠나는 CD학생들과의 ‘**드림랜드 계획**’ 또한 무산되었습니다.

아띠들도 학생들과 함께 국경지대로 떠나 구호 활동에 도움이 되고 싶었지만, 아띠들의 안전을 염려한 Caritas 측의 권고로 갈 수 없게 되어 무척이나 큰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드림랜드 계획: 7월 1일에 떠나는 CD학생들과 6월 중 놀이공원에 함께 놀러 가려던 아띠들의 계획

II. CDP 학생들의 실습



▲ 성실왕 출석왕 소포안

섬온만 빠진 CD학생들
환경포럼에서 다 같이 ▶

C D학생들이 두 달간의 실습을 위해 바탐방으로 떠났습니다.

아띠들의 수업과 캠페인에 가장 많이 참여를 해줘 더욱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떠난 만큼 아띠들은 무척이나 슬퍼했습니다.

그래도 아띠들은 또 다른 원동력을 찾을 수 있겠죠!!! 더 큰 배움을 위해 떠난 CDP 학생들이 모두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2. Korean Class(children)



Mr. Meng, Mrs. Phirum과의 이야기.

아띠들은 까리타스와의 피드백 시간에 ‘엇쩍, 츠까에’ 사건을 피룸, 멍씨와 함께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피룸이 직접 수업시간에 들어와 크메르어로 아이들을 잘 타일러 주셨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아띠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꼈다는 것과 함께 ‘놀고’ 싶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개편했습니다. (월_교실 수업 / 수_영화 보기 / 금_함께 놀기)
이후 아띠들은 아이들을 다시 귀엽고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후문아...



▲ 월요일 _ 교실 수업



▲ 금요일 _ 함께 놀기

3. English Class

Do you want to build a snowman~?



▲ Let it go~~~~ 겨울왕국을 보는 학생들
겨울왕국 OST를 흥얼거리던 랑카의 휘업 단원이 생각나네요^^

▲ 집중해서 보고 있는 소반든 ▲

영어 수업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해 아띠들은 임시로 basic+intermediate 반을 합쳤고 노래가 들어간 영화들을(겨울왕국과 마다가스카르3) 영어 자막으로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겨울왕국' 에선 눈으로 휩싸인 화면과 듣기 쉬운 노래가 유스들의 집중을 끌었고, '마다가스카르' 의 귀여운 동물들과 재미있는 내용 덕분에 아띠와 학생들 모두 즐겁게 시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4. Cooking Class



이번 달 쿠킹클래스 메뉴는 ‘짜장밥’이었습니다. 지난 달, 비빔밥이 너 **칭안칭안~(맛있어요)**
 무 매워 유스들과 아이들 입맛에 맞지 않았던 것을 떠올려 이번에는 맵지
 않은 보편적인 입맛의 메뉴를 선정하려 노력했는데요. 짜장밥의 재료
 로는 짜장 가루+양파, 당근, 감자, 양배추 등 시장에서 산 신선한 채소들
 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유스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검은 음식 먹기를 시도
 하였으나... 맛있게 먹는 유스들도 있는 반면 몇 숟갈 먹지 못하고 이내 숟
 가락을 내려놓은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메뉴를 선정할 때 현지 입맛을 고려하려 노력하는데 입맛에 잘 맞을지
 확신이 없다는 저희의 고민을 들은 카리타스 스텝 Mr.Thann 은 쿠킹클
 래스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는 것 보다는 이곳 유스들이 새로운 문화
 를 접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쿠킹
 클래스가 보다 ‘학생참여적’으로 변화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변화된 쿠킹클래스를 보여주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5. Sports Activ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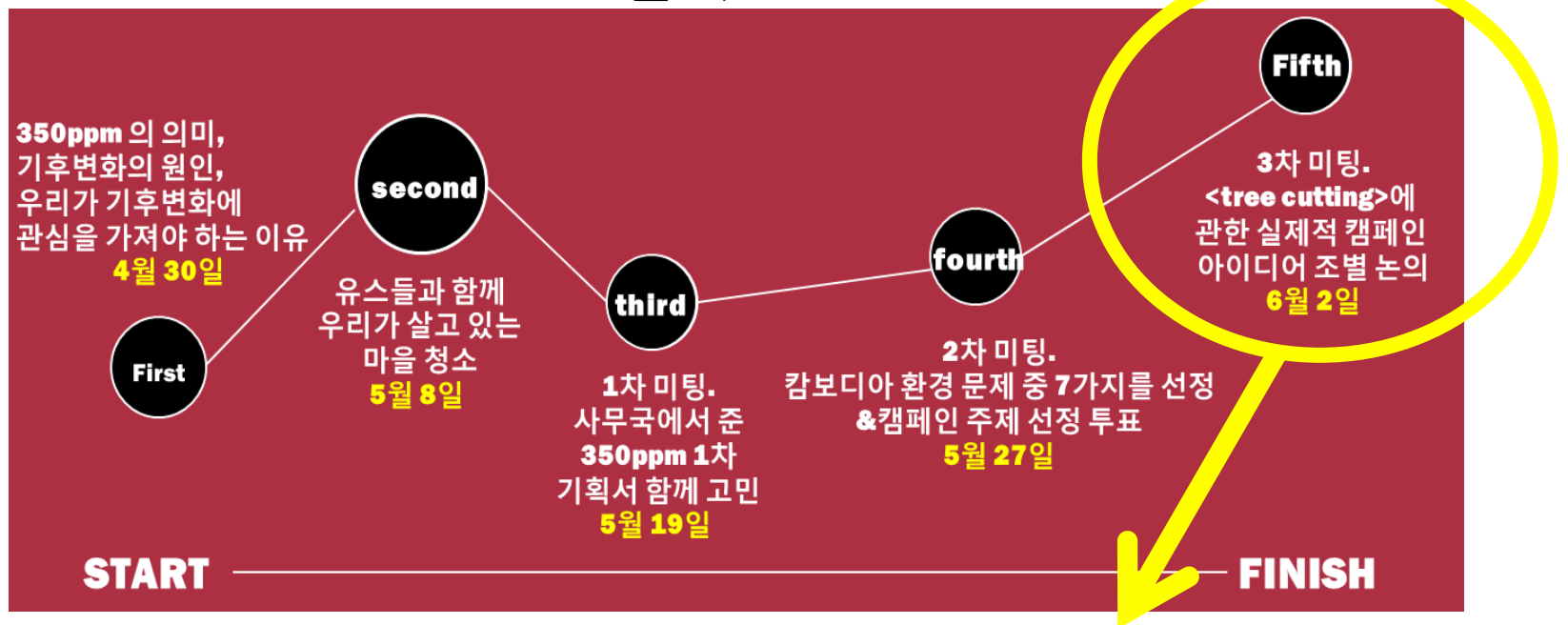
6월 Sports activity도 지난 달에 이어 피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이제는 학생들이 룰에 익숙해져 원활한 게임 진행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두 男 아띠만 게임을 진행하고 게임에 참여했지만, 학생들과 함께 즐기는데 의미가 있는 sports activity 이므로 다음부터는 모두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1. 350PPM 준비단계

4월 마지막 주부터 6월 5일 본 행사까지, 약 40일간의 준비시간을 거친 깐달 팀의 350PPM. 한 번 들여다 보실까요?

캠페인을 기획할 때부터 저희는 두 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자. 두 번째는 캠페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350PPM의 뜻을 알게 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캠팀은 350PPM 캠페인을 이렇게 준비 했습니다!



6월 2일에 열렸던 세 번째 미팅에도 5월과 마찬가지로 43명 가량의 학생들이 함께 했습니다.



2. 350PPM **본** 단계 | (6/4)

3 차 미팅 때의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한 본 캠페인은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4일은 CD학생 14명과 라온아띠,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 캄보디아 환경부에서 주최한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딱딱한 분위기였지만 행사를 마무리할 때 나무를 심는 시간도 있었는데요.

아띠들과 유스들이 정한 350PPM 캠페인의 주제가 TREE CUTTING인 만큼 학생들은 나무를 심어보고 싶어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띠들이 배정받은 예산과 능력으로는 나무를 심는 행사를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었기에 모두들 아쉬워하고 있던 찰나 Mrs. Phirum 씨께서 이 포럼에 가면 나무를 심을 수 있으니 같이 가자는 제안을 해주셔서 아띠들과 유스들은 이 포럼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날 캄보디아에는 총 2003 그루의 나무가 심어졌다고 합니다. CD학생들이 뿌듯해하는 걸 보며, 저희도 행복했습니다!



2. 350PPM **본** 단계 II (6/5)

이번에는 6월 5일, 본 캠페인 일정입니다.

시간		일정		장소
오전	10:00 ~ 12:00	350PPM, Tree cutting에 관한 엽서 만들기		Caritas Green booth
오후	2:00 ~ 5:00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약속을 리본에 적어 Hope Tree에 걸기		
	5:00 ~ 5:30	나무 심기		
	5:30 ~ 6:30	다 함께 환경 노래 부르기 서로 엽서의 의미 설명하기 (진행 : Bunseu & Sophorn)		Caritas 2층 교실

① 엽서 만들기



▲ 성운의 그림 그리기 실력은?!

서투른 솜씨지만, 페인팅 반 속치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열심히
엽서를 그렸습니다 ▼



▲ 작은 엽서 전시회도 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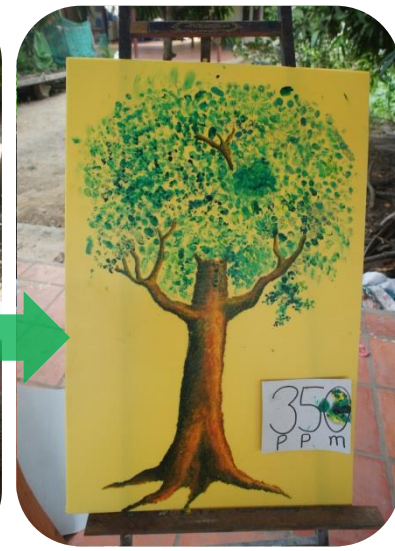
2. 350PPM **본** 단계 II (6/5)

② 리본 매달기



▲ 환경을 위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적어 희망의 나무에 매달기도 하고~

③ Finger Print Tree



▲ 학생들의 지문으로 나무의 나뭇잎이 이렇게 풍성해지고~

2. 350PPM **본** 단계 II (6/5)

④ 나무심기



전날 환경포럼에서 나무를 심는 캠페인을 했었지만 CD반 학생들을 제외한-Accounting, Hair dresser, Painting 등등- 다른 학생들은 그 행사에 가지 못했고, 장애학우 또한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모여 아띠들이 환경포럼에서 가져온 나무 두 그루를 Caritas 센터 내에 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무 심는 데에는 얼마 걸리지 않았지만, 휠체어를 탄 학우도 함께 흙을 덮었고 평소에 350PPM 미팅에 참여하지 않던 학생들도 함께 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⑤ 환경 Song 배우기



뿐싸와 소포안이 가르치고 나머지 학생들과 아띠들이 배우는 환경 song 배우기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노래, 캠팀이 음을 붙여보려 뿐싸에게 번역을 부탁했지만 어디엘 넣어도 너무 어색했습니다. 캐롤에도 넣어보고 엄정화의 페스티벌에도 넣어보았지만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 당장 캠페인을 진행해야 했지만 밤새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뿐싸에게 S.O.S를 보냈습니다. 뿐싸는 흔쾌히 "OK! 내가 진행할게"라고 해주었고 성공리에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3. 350PPM 아띠 Feedback

-환경 Song 배우기에 대한 MoMo(예은) 소감



- **환**경 노래를 배우는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서 어려운 마음으로 Youth들에게 진행을 맡겼는데, 너무 자신감 있고 즐겁게 진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너무 많은 걱정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생들끼리 진행을 하고 캠페인의 마지막을 Youth들이 직접 장식한 것 같아서 그 의미가 더 크게 느껴진다.

- **평**소 한국어와 영어 수업에 들어오지 않던 학생들이 350ppm meeting에는 많이 와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고마웠다. 그리고 학생들 또한 서로 이야기를 하는 데에서 재미를 느끼고 찾은 것 같아 뿌듯했다.

시간이 부족해 발표를 문제 분석에 대한 것만 한 것 같다. 다음에는 짧은 솔루션들을 보여주고 그 동안 우리가 참여한 활동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여주고 싶다.

스태프인 피룸과 탄이 우리를 위해 근무시간 외에도 통역을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

-Meeting에 관한 Feedback

모두 모두 고마워요~



3. 350PPM 아띠 Feedback

-6/5 캠페인

그린부스에서 학생들이 학생들을 부르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350ppm에 대해 서로 설명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점심 시간에 왔는데 학생들이 부스에 앉아있는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였다. 원래 계획은 먼저 포스터를 만들고 희망 나무에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작은 약속을 적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지문 나무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미처 동선을 생각하지 못해서 우왕좌왕한 것 같아 아쉽다. 캠페인이나 다른 일을 진행할 때도 동선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 전체 Feedback

생각보다 Meeting을 진행하고 Youth들의 의견을 모으는 일에 시간이 많이 소모됐다. 시간이 조금 더 있었다면 Youth들과 더 많이, 자주 소통하고 더 잘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많은 학생들이 나무 심기를 원했었지만 포럼에 가는 학생들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서 아쉬웠다. 그렇지만 환경포럼에서 나무 두 그루를 가지고 왔고, 다음 날 함께 나무를 심는 시간을 가져서 다행이다.



3. 350PPM 아띠 Feedback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진 뽀새가 우리를 마주칠 때마다 meeting 날짜를 물어봐서 힘이 많이 났다. 그리고 350PPM에 대해 물으면 자신 있게 설명하는 학생들도 있어서 뿌듯하다. 우리 350PPM 캠페인, 이 정도면 제법 성공한 것이 아닐까?



1. 다 함께 푹딱푹딱 닭장 만들기

6월 둘째 주, 아띠들은 Target Village 중 한 곳인 Svay Prey 마을에서 마을 분들과 함께 새 닭장을 만들었습니다. 아띠들은 동네 분들과 함께 기둥으로 쓰기 위한 나무를 재단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뼈대를 세우는 작업을 마친 뒤, 아띠들은 벽을 막는데 쓸 대나무를 손질하였습니다. 대나무는 족제비나 고양이 등의 위험으로부터 닭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혹시나 닭들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나무의 모난 부분까지 세세하게 다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울타리 규격에 맞추기 위해 대나무를 재단하는 과정까지 참여하며 아띠들은 이 세상 어떤 것도 쉽게 만들어지는 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나무를 준비하고 난 후, 아띠들은 손질 된 대나무를 이용해 닭장에 울타리를 두르는 작업을 했습니다. 아래 부분, 중간 부분, 위 부분. 세 번의 못질을 통해 대나무를 고정시켰습니다.



이후, 지붕을 고정하는 작업, 문을 설치하는 작업 등 일련의 마무리 작업을 거친 뒤 닭장은 완성되었습니다!



2. 버섯 재배 농가 일손 나눔

지난 달, 아띠들은 Svay Prey에서 대규모 버섯 재배를 준비중인 농가를 찾아가 버섯 재배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CDP Staff Mr.Samnang의 설명을 듣고 난 뒤, 버섯이 자라는데 양분이 되는 혼합모래를 만드는 과정과 그 혼합모래를 비닐로 포장하는 작업에 참여하며 버섯 재배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3. CDP 활동에 대한 Team Feedback

지난 달, 아띠들은 굉장히 유연한 Field work 스케줄을 경험하며 CDP Staff과의 **지속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아띠들은 매월 초, CDP Staff들과의 미팅을 통해 그 달에 있을 CDP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스케줄을 조정하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이전 달들과 마찬가지로 지난 달 초, 아띠들은 CDP Staff로부터 6월 CDP 스케줄을 전달받았고 그 스케줄에 따르면 6월 넷째 주에는 Target Village 중 한 곳에서 닭장을 만들기로 예정돼있었습니다.

하지만 Field에 나가보니 예정된 스케줄과는 달리 아무 일도 계획되어 있지 않았고 결국 아무 활동 없이 2~3일을 연거푸 쉬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기로 인해 일정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업무 보고서 작성으로 CD Staff들이 바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앞서 말한 것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여도 스케줄 변동에 대해 사전에 아띠들과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점, 닭장 만드는 작업이 아닌 다른 작업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아띠들은 Caritas 측에 제출하는 CDP 보고서에 Team feedback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건의 이후, 아띠들은 CDP Staff와의 미팅에서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스케줄을 제공하겠다는 CDP Team Leader Mr. Rossekdey씨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 은솔 간사님과 아띠들

간달팀의 중간평가는 예정보다 3주 정도 늦은 6월 17일에 하게 되었습니다.

은솔 간사님은 토요일 밤에 도착하셔서 휴일인 일요일에 아띠들과 여유로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프놈펜에 나가 식사를 하고 카페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간사님과 아띠들은 일대일 대화를 통해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날, 아띠들과 은솔 간사님은 함께 필드에 나갔습니다. 버섯 농가를 방문해 비닐 봉지에 버섯 밥을 담은 작업을 했는데, 발효된 냄새가 폴폴나는 버섯 밥을 담은 일이 쉽진 않았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아띠들이 싸간 점심 도시락도 함께 드시고 낮잠도 다같이 잤습니다.



2. 3달 그리고 반... 중간평가

그날 밤, 수원Y의 지역 간사님이신 라영석 간사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라 간사님께서 오신 다음 날 중간평가가 진행되었는데요. 아띠들이 CDP활동을 진행했던 마을의 주민들을 만나 뵙고, 지난 3달 반 동안 어떤 일을 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후에 중간평가 진행되었습니다.



깐달 카리타스의 No.1, Mr. Meng씨께 카리타스 사업 소개를 들은 후, 아띠의 프레젠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띠들이 3달 반 동안 이곳 깐달에서 생활하며 느낀 소감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애정으로 울음을 그치기 힘들었던 예은 단원... 이제는 웃는거야 스마일 어게인~♪ 마지막으로 간사님들의 질문 시간이 있었고 카리타스의 깜짝 선물 증정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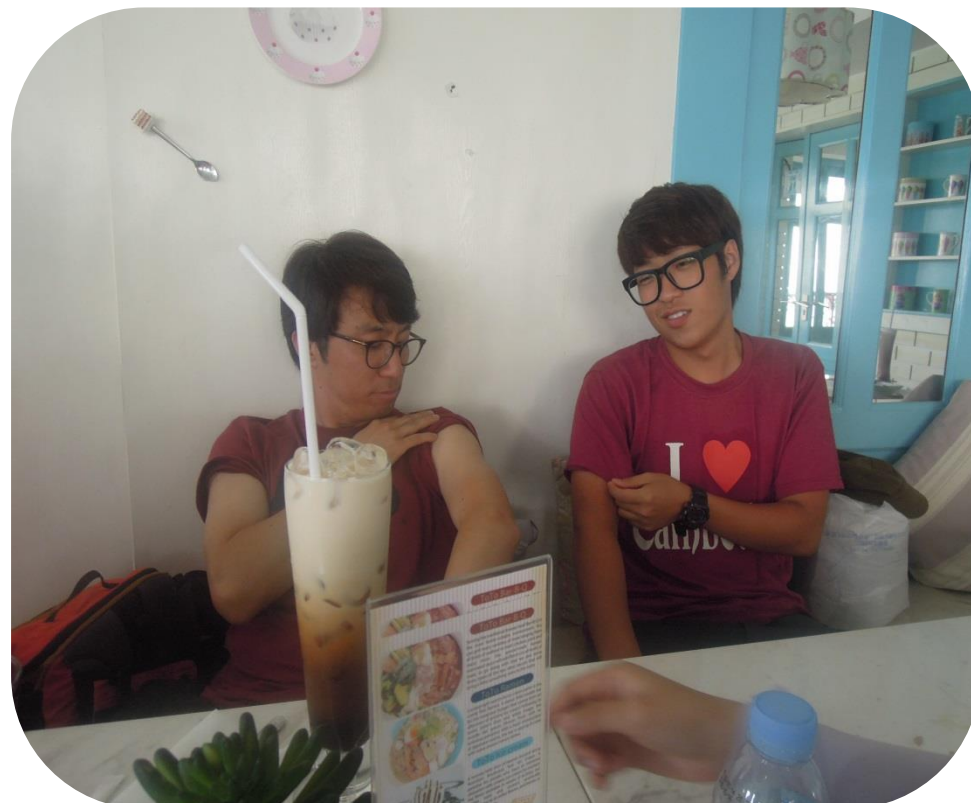


중간평가가 끝난 후, 은솔 간사님께서서는 현지 스텝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고 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3. 라 간사님과 아띠들

중간평가 다음 날은 공휴일이었는데요, 덕분에 새벽에 월드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프싸 트마이에 가서 기념품도 사고 리버사이드에 가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던 그날 밤... 효림 단원이 탈이 나 늦은 밤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명은 비장티푸스성 살모넬라(?) 하루 입원하게 된 효림 단원과 간병하는 강희 단원 대신, 라간사님과 아띠들은 마을에 나가 두 아띠들의 뭍까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4. 두 간사님과 아띠들

두 간사님이 떠나시고 난 뒤, 아띠들은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간사님께 피드백을 받고 그 동안의 생활과 다른 앞으로의 생활을 다짐하는 아띠들도 있었던 만큼 중간평가는 아띠들에게 긍정적인 자극이 되었습니다.

카리타스와 함께한 중간평가에서, 간사님들께서는 카리타스 분들께 아띠들의 단점을 말해달라고 부탁하셨지만 카리타스 측에서는 아띠들의 장점밖에 말할 게 없다고 했습니다. 아띠들이 생활하는 모든 면에 있어 분명히 아쉬운 점이나 바라는 점이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런 부분을 듣지 못한 것에 아띠들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1. 환경포럼 with CD 학생



6월 4일 환경포럼에는 센터의 스텝들, CD반 유스 모두와 함께 참여했는데요. 포럼이 끝나고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유원지에 가 시장에서 밥도 사먹고 근처의 파고다(사원)도 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고 가는 길의 버스 안에서 CD학생들은 조는 모습의 아띠들을 사진 찍고 놀리며 장난도 쳤습니다. 이렇게 CD 유스들과 아띠들은 한 발짝 더 가까워 질 수 있었습니다.

2. 세계인의 축제, 월드컵 즐기기

4년에 한 번 열리는 전세계 사람들의 축제, 월드컵이 6월부터 열렸습니다!
이에 낀달 아띠들은 월드컵을 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센터의 인터넷을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라 간사님**도 한국의 첫 경기였던 러시아 전을 함께했고 축구 경기를 보기 어려웠던 **유스들**도 다른 경기들을 함께 관람했습니다.

비록 뚝뚝 끊기는 중계이긴 하지만 볼 수 있다는 사실에 참 감사한 월드컵이었습니다. 특히 축구에 관심 없던 **女** 아띠들도 '훈훈'한 선수들에게 푹~ 빠져 새벽 월드컵 경기도 챙겨보고 있다는 후문이...



현재시각은 새벽 5시



3. 가깝고도 먼 그대, 평양랭면

지난 6월 18일, 공휴일을 맞아 아띠들은 라간사님과 함께 프놈펜에 있는 평양랭면관에 다녀왔습니다. 기대에 부푼 마음을 안고 들어서자마자 딱! 눈앞에 북한의 젊은 여성들이 분주하게 서빙하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남남북녀라는 말이 있듯이 어여쁜 북한 여성들의 모습에 한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고, 테이블마다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 난생 처음 북한 여성과 말도 해보았습니다. 음식도 굉장히 맛있었고 30여분간 진행되는 노래와 춤, 악기 연주, 상모 돌리기 등 모든 공연들이 화려하고 재미있는 볼거리였습니다. 만날 수도 없는 북한사람, 먹을 수도 없는 북한음식이었기에 더욱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보고 싶으시죠?



태호 단원

6월이 다 지나고 7월이 왔다.

에세이를 쓰고 있는 오늘로부터 채 한 달도 안 남았다.

최종 개인 에세이를 제외하곤 마지막 에세이지만
쉬이 쓸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감정 부족이 아닌 감정 과잉의 문제.

갈무리 하지 못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 지 명확하지 못하다.

수 많은 감정들에 응답하며 응감하고 때론 응어리 진 마음들로 인해 응당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니 찬 눈으로 나를 응시하는 것은 나지만 그런 나
를 다시 응원하는 것도 온전히 나이다.

계속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남은 기간 더 유쾌하게 지내야겠다.

강희 단원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할까. 이대로 죽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순간을 느끼기엔 내 나이가 아직 너무 어린가? 니체는 20살에 거의 모든 것을 말했다는데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나는 자유를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 애초에 내가 자유를 진정 바라긴 했던가? 물론 나도 이 곳 생활에서 진정 눈물이랄 것을 흘리기도 했지만,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벌컥 남 상처주는 말이나 내뱉고 모순으로 가득 찬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 후회한다기 보다는 내가 그런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것이 실망스럽다. 참자. 참자. 버티자. 버티자. 한달만 버티면 괜찮아질 것이다. 웃자. 남은 기간 동안 한번이라도 더 웃자. 웃자. 이런 생각이 진심이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진심이다. 나 진짜 멋없다. 난 솔직한 사람이라고 포장해보고 싶지만 그럼에도 너무 멋없다.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 한 유월이었다.

예은 단원

-이별

6월은 이별이 잦은 달이었다.

그리운 간사님들과의 짧은 이별부터, 어쩌면 영영 볼 수 없을 CD학생들과의 긴 이별까지...

내가 캄보디아 생활에서 의지를 가장 많이 하고, 볼 때마다 든든했던 CD학생들은 국경지역으로 가는 일정 때문에 우리와 급하게 이별 인사를 했다. 밝은 웃음으로 항상 나에게 긍정 에너지를 주던 씬냥은 이제 고향으로 가서 까리타스에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한다. 라 간사님께서도 우리가 무척 걱정스럽다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 옮겨 떠나셨다.

많은 이별 때문인지 6월은 너무 빨리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이 떠나고 남겨진 시간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느릿느릿 걸어가고 있다.

다시 만날 수 있는 인연이든, 만날 수 없는 인연이든... 나와 만났던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아이들과 다시 시작

나에게 5월이 특히나 힘들었던 이유 중에는... 내가 사랑하던 아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은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어 수업 내내 뒤에서 들려오는 욕을 들으며 '내가 왜 이려고 있는 거지..?'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었다.

아이들이 더 이상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았고, 만나도 반갑지 않았고, 아이들 앞에서 억지로 웃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싫다'라는 생각을 했었다. 결국 피룸과의 대화를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지만 솔직히 지금도 아이들이 전처럼 완벽히 사랑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피룸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눈치를 보며 나에게 말을 거는 모습이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이나, 집에 계속 찾아와 나를 부르는 아이들은... 나보다도 더 미안해할 줄 알았고 나보다도 더 관심을 보이는 방법을 아는 것 같았다. 그런 아이들에게 냉정하게 대하고 그 사랑을 의심했던 내가 너무 못나 보였다.

이제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같이 놀고, 영화를 보고, 색칠공부를 한다. 아이들은 노는 과정에서 '술래' 나 '얼음, 땡' 같은 단어들을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 책상에서만 하는 게 공부는 아니었을 텐데... 아이들과 지낸 지 4개월 째, 나는 나에게 조금씩 더 사랑스러워지는 아이들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다.

효림 단원

6월은 헤어짐의 달이었다. 거의 매일을 얼굴을 보고 지낸 CD학생들과 7월에 헤어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더 6월에 시간이 가는 것이 무겁게 느껴졌다) 6월 중순쯤에 학생들이 국경지대로 가는 일 때문에 갑작스레 생이별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6월 마지막 날 단 하루 만나고, 그들은 떠나버렸다. 학생들이 떠나고 난 후 별이별 생각이 다 들었다. ‘지금이야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왠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언제쯤 내가 그들에게서 잊혀질까’, ‘나는 언제쯤 기억이 추억이 흐려질까’, ‘나는 CD학생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을까’, 우리에게 시간이 그래도 아직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묻지 않은 궁금한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났다. 22살의 나에게 있어서 아직 다시 만나지 못할 친구는 이제껏 없었다. 어쩌면, 다시 만나지 못할 친구를 생각하는 것은 나에게 이런 기분을 들게 하는구나 싶다. 말로 설명하기에는 내 능력이 닿지 못한다. 다시 한 번 다가올 큰 이별은 나에게 또 어떤 기분이 들게 할까.

제준 단원

6월은 많은 일들과 함께 바쁘게 시간을 보냈다. 원했던 chicken cage를 만들었고, 중간평가를 끝냈고, 한국에서 오신 간사님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냈다. 행복한 시간을 보낸 만큼, 슬픈 시간도 보내야 했다. 항상 수업에 참여하였던 CD반 학생들이 바탐방으로 2개월동안 실습하러 떠났고, 머리를 4번이나 공짜로 잘라주었던 헤어드레스반 학생이 고향으로 떠났다. 캄보디아에서의 첫 이별은 어쩌면 다시 볼 수도 없다는 사실을 서로 잘 알기에 슬펐던 것 같다. 하지만 그 동안 재미있게 장난치고 놀았던 소중한 기억들이 내 머릿속과 가슴속에 남아있어서 조금은 위안이 된다.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덧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 이제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실감도 나고 이런저런 나답지 않은 생각들이 많이 든다. 나답지 않은 생각들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나는 캄보디아에 온 이래로 지금까지 참 잘 지냈다고 생각했었다. 현지음식만 적응을 못 할 뿐이지, 여기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모든 생활에 나 정도면 잘 지내고 있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었다. 한국을 그리워하는 팀원들을 볼 때마다 나약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요즘은 내가 진짜로 이곳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에 마음이 공허해 질 때가 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다.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아 괜히 드는 생각일 수도 있고, 지내온 시간 동안 만족하면서 지내다가 이따금씩 찾아오는 공허함 일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적응이 안되고 마음을 컨트롤하기 힘들지만 잘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기 때문에 생각 하나하나 잘 받아들여 가는 날까지 생각의 실마리를 풀어야겠다.





썸은~ 안녕 ↗



Human of Hope 공동 작가

으혁 심장이 텅텅



비행기를 이렇게 이렇게...

태호 단원의 일명 라떼 팔

돌아온 깐달 아기 스페셜☆



이제 보니 셀카의 달인 티어라



여전한 얼짱 베이비 짜뜨라



돌아온 깐달 아기 스페셜☆



짝짝꿍 비싸이 & 김홍 콤비



냠냠쩍쩍 새침 반냐



최종 보고서로
만나요~

